믿음의 연분술

The Alchemy of Faith Produces Dung

빌립보서 3:4-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6월 9일 설교

[4]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내가 팔 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바울을 쓰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세 번째 살핍니다. 배울 게 정말 많지만 다른 사람도 살펴야 되니 바울은 오늘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제 구원의 경험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고 제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죽을힘을 다해 주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셨습니다.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저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일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대표고 열심히 사는 삶의 대표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어떤 방법, 어떤 원리로 들어 쓰시는지 바울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 일꾼 아닙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일이야 물론 못 하겠지요.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배운 것처럼 받은 만큼만 남기면 주님께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 배워야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신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팔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따라 해 볼까요? "배설물!" 느낌이 옵니까? 전 별로 안 옵니다. 배설물을 한 자로 줄이면 뭡니까? 예, 똥이지요. 같이 해 봅시다. "똥!" 이제야 냄새가 좀 나지요? 바울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똥으로 여겨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귀하게 여기던 것들

바울이 뭘 똥으로 여겼습니까? 첫째는 핏줄입니다. 타고 난 거지요. 유대인 혈통인데 순수 유대인 혈통입니다. 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부모도 철저한 유대인이었겠지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이런 게 있는데 물을 필요도 없이 내가 바로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히브리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안 오지요? 꼭 일본 사람이 "난 진짜 사쿠라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유대인이라면 정말 부러워할 핏줄입니다.

둘째는 신분입니다. 이건 자라면서 얻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에 가장 철저하던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율법 지키는 걸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율법 지키는 법을 따로 만들어 그것까지 열심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는 멀리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매주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로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눅 18:11-12; 마 23:23). 바리새파에 속하기만 해도 최곤데 바울은 그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스승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행 22:3). 그렇게 배운 그걸 또 남달리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랬으니 율법을 무시하는 교회를 또 열심히 핍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기에 바울은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청년일 때 유대인의 대표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에 좋다 생각했던 것을 모두, 전부,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해는 손해를 뜻합니다. 전에는 이득이라 생각했던 걸 지금은 손해라 생각한다, 전에는 얻었다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은 거다, 날린 거다, 그런 말입니다. 뭐가요? 바울의 학식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잘 했고 헬라 문화에도 능통했습니다. 성경과 다른 학문을 많이 배우다 보니 논리에도 뛰어났습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설득하는 일을 잘 했습니다. 조직력이나 추진력도 뛰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조언을 받아들여 교회를 박해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뒤에서 음모를 꾸며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듦으로써 공의회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참 보화를 발견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똥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똥,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똥이라는 말의 원어는 "개에게 던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개가 똥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던 것들인데 이제는 더러워 가까이 못 두고 개에게 던져 버립니다. 뭘요? 핏줄, 신분, 교육, 논리, 설득력, 지도력, 조직력, 추진력, 하여간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귀한 것들이 어떻게 다 똥이 되었는지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다, 으뜸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같이 해 봅시다. "예수를 아는 게." "최고다." 전에 좋다 생각했던 게 똥이 되어버린 이유는 진짜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면 일등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바로 바울 자기라 했습니다. 그만큼 완벽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만나고 보니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켰다 하는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특히 율법을 지킨답시고 교회까지 박해했으니 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순간 구원도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걸 얻고 나서 보니 율법을 지키려 애쓴 지난날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살았던 나나 닥치는 대로 마구 산 다른 사람이나 오십 보 백 보였습니다. 그래 놓고 난 남보다 의롭다 하며 목에 힘을 주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분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했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고작 수십 년 살면서 수십 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거 말고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나니 세상 것들은 이제 다 시시합니다. 전에는 그게 목표였습니다. 세상 살면서 돈도 좀 가지고 싶고, 권세도 부리고 싶고, 쾌락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알고 나니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목표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이걸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 13:44). 어떤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흙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어두고 집에 돌아와서는 있는 것 없는 것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소작하는 그게 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내 사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보화인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겠지요. 이거 하나면 수십, 수백 년 농사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걸 발견한 순간부터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걸 다 처분해 이 보화를 손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캐내면 땅 주인이 가져갈 겁니다. 소문도 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덮어놓고 우선 이 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묻힌 보물도 내 것이 되지요.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지요? 정말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나라 말고 다른 보화가 있을 수 없고, 다른 것들은 오직 그 나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전에 귀하게 보이던 게 다 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똥과 참 보화

구약 시대에도 신약의 바울처럼 한 때 소중하게 여기던 걸 똥으로 여겨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모세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 갓난아기 때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족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학문도 문화도 최고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궁이니 교육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책도 많이 읽었겠지만 장차 통치자가 되기 위한 준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꼭 왕이 안 되어도 왕족이니까 나라의 요직을 맡아 일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중에 다 쓰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냥 돌판 두 짝 받아 배달만 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익혀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담은 신명기는 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이집트 궁중 교육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력 훈련도 쓰셨습니다. 왕궁에서 받은 지도자 훈련이 아니었다면 거의 삼백만이나 되는 백성을, 말도 지지리 안 듣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십 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 잘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뭡니까? 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왕족의 신분, 최고 수준의 왕궁교육, 내가 가진 재물, 권력, 나에게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왜요? 그게 금덩어리로 보이면 아직 진짜,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 놓은 히브리서 십일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4-26).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재물이라 했습니다. 주님 비유와 비슷하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가장 귀하다면 나머지는, 이집트의 권력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다 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고 부자 나라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걸 똥으로 여기고 개한테 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귀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버리면 쓰신다

바울도 모세도 남들은 못 가진 놀라운 기술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분술, 곧 똥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금이 가장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값싼 재료를 어떻게 잘 섞으면 혹 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연금술입니다. 제련해서 금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말이지요. 싸구려 재료를 이용해 그 비싼 금을 만들 수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금술을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로또 복권 사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 연금술사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연금술 때문에 화학이 발전했고 덕분에 연금술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한 지금은 다른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가능하긴 한데 재료비랑 또 바꾸는 비용이 더 들어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보니까 지금도 연금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어느 사이비 부흥사 광고를 보니까 아말감으로 이빨을 한 사람이 부흥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 했습디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빨 하나면 한국 왕복 비행기 삯은 되겠지요?

연금술이나 연분술이나 제품의 색깔은 비슷합니다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을 만든다는 연금술은 가짭니다. 사기지요. 그런데 똥을 만드는 연분술은 진짭니다. 진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정말로 내버립니다. 개에게 줘 버립니다. 쇼라면 그렇게 못 하지요. 아까워서 어떻게 개한테 던지겠습니까? 정말로 똥으로 여기고 그래서 에이 더럽다 하고 개에게 던져버리는 거기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쓰시지 왜 꼭 더럽게 똥으로 만들어야 쓰십니까? 그게 똥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중한 이상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금을 똥으로 만드는 연분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 내 인생의 목표라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욕심이요 고집이요 내 교만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의 것까지 빼앗고 남보다 높이 되려고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내 즐거움을 더 누리려고 남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바울

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 지난날이 부끄러워 그저 숨고 싶어지는 게 은혜요 믿음입니다.

큰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 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 한 그 지식,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우리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생애를 두 번째 살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잘 나옵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일도 잘 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겠지요? 일의 성과도 좋습니다. 승진도 하고 책임도 맡게 됩니다. 월급도 많아지면서 좀 우아한 생활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 얻는 것들이 다 바울이 똥으로 여긴다 한 것들 아닙니까? 내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이름 내고, 이런 모든 게 주 예수를 아는 가장 소중한 보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똥으로 여긴다 해 놓고 지금 온 몸을 똥으로 칠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전에 소중하던 것을 똥으로 여기는 그게 결론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게 출발점입니다. 길고도 힘든 싸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고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들어 쓰시려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쓰실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나를 항상 쓰시므로 내가 처한 곳에서 항상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할 일은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일을 알아내어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목표는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바쳐야

우리 삶은 싸움입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의 싸움이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싸움입니다. 전에는 목표이던 게 이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참 목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목표였던 것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 아래 굴복시켜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값진 보화를 얻으려 가진 재산 다 팔아치운 그 소작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로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루어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부지런히 팔아야지요. 열심히 장사해 남겨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학자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되어 좋은 업적을 많이 이루어야 됩니다. 성취는 귀한 것입니다. 남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 이룬 건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아니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애써 이룬 것들이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룬 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쓰는 거지요. 내 탐욕이 나를 쓰고, 내게 탐욕을 주는 마귀가 나를 씁니다. 차라리 가진 것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열심히 일해 이룬 모든 것으로 마귀 좋은 일만 하고 마니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한 순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수시로 꾸준히 쉬지 않고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만 해 놓고 멍청하게 있다가 내 걸로 못 만든다면 바보 중에서도 바보 아니겠습니까? 꾸물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가서 살림살이 다 팔고 사돈 팔촌까지 찾아가 돈을 꾸어 보물이 묻힌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가장 귀한 그 하나에 다 걸어야

됩니다. 내 핏줄도, 신분도, 지위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시간도, 열정도, 추진력도, 지도력도, 단 하나도 빼지 말고 주 예수의 십자가 아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써주소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런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보화를 발견한 자답게 다른 건 다 개에게 던져야지 말로는 보화를 찾았다 해 놓고 남들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건 내가 개가 되어 남들이 던져주는 똥이나 받아먹고 사는 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게 복입니다. 모세를 쓰시고 바울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부도 시키시고 다양한 경험도 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재주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태신앙의 전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짜릿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못난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금을 날리는 분이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 그대로 활용하시는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듬뿍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값진 보화로 간직하게 하시고 다른 건 다 똥으로, 참 보화를 얻는 수단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삽시다. 좋은 꿈도 꿉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알고, 주 예수께서 이 못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고,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권수경 목사)